

# 문화다양성을 통해 본 욕망

## 문화다양성과 주체적 삶

최혜자 성공회대학교 대우교수/문화디자인자리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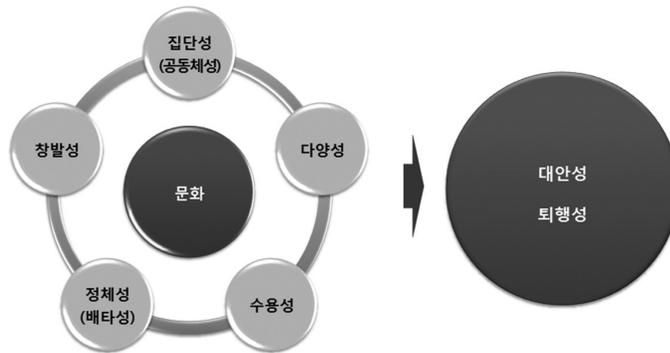
## 문화라는 것

문화다양성이라는 말이 사실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문화가 다양한 게 당연합니다. ‘백인백색’, ‘아롱이다롱이’ 등 사람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말들이 일상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또한, ‘집집마다 장맛이 다르다’는 말도 있습니다. 문화다양성은 이토록 우리 생활과 삶에서 일상적으로 알고 느끼는 감성입니다.

이 당연한 것을 왜 공부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상 속에서는 누구나 느끼고 있지만, 우리사회 전반 즉, 공적 질서 속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론, 질서, 미풍양속,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가치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집중하고 있는 그 가치가 다른 가치와 공존하지 않는 배타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치들을 그릇된 것 혹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다양하며, 사는 모습 역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각각의 모습이라는 것이나 가정이나 집단마다 제 각각의 문화가 있다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 집단의 본질적인 성격으로 문화의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문화는 개인의 특성과 달리 집단성(공동체성)을 가지며, 다양하고(다양성), 서로 섞일 뿐 아니라(수용성), 때때로 서로 충돌하고(배타성), 새롭게 재구성되기도(창발성) 합니다. 이러한 문화의 특성으로 인해 문화는 인간 집단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하고(대안성), 내적 균형을 잃게 되어 쇠퇴하기도(퇴행성) 합니다.



<그림> 문화의 다양한 속성

## 특별할 것 없는 “문화다양성”의 발견

그런데, 문화다양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특별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감성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경계선상에 있거나 구별되기도 합니다. 인간 본성에 해당되는 이 특성을 사회에서 받고 말고 할 것이 없을듯한 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와 구분이 하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까닭에, 문화다양성은 부정한 것이 아닌지 헷갈리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이러한 보편 감성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음에도 우리 스스로 인

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더 나아가,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점잖고 올바른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경계와 구별이 바로 국가 체계 속에 법과 제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질서 속에 개인의 감성 따위는 매우 사치스럽거나 위험한 것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국가적 이념과 법 그리고 제도 속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언제나 선한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감각의 혼란을 발견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바로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은 유럽 사회가 무엇이 인간을 그토록 잔혹하게 만들었을까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인간은 원하지 않으면서 전쟁을 치르고, 죽어야 하는가? 무엇이 이렇게 만드는가?

전쟁과 참상 속에서 유럽의 지성은 인간에 대해 저질러진 참혹한 학살과 만행 뒤에 거대한 권력의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대전이 끝난 지 3년이 지난 1948년 UN에서는 역사적인 “세계인권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거대한 권력도 인간이 가진 본연의 존엄을 강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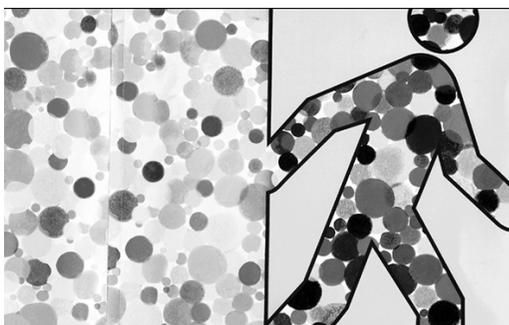
아마 이 인권선언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선언 중의 하나 일겁니다. 이러한 인권정신에 입각하여 권력의 전횡을 막는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왔으며, UN은 그것을 권장하고 때로는 강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림>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무기생산 모습  
(출처: <http://raccoonwagen.tistory.com/1843>)

## 마침내 특별해진 ‘문화다양성’의 등장

그러나 이것으로 인간이 가진 다양성이 지지되고, 집단의 정체성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인간에 의해 저질러지는 참혹한 학살과 만행은 한두 명의 선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인간 스스로 성찰하는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사회의 이러한 고통은 누군가를 징벌하고,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인간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바로 개개인의 내적 힘이며, 그것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문화다양성입니다.



<그림> 2002년 문화다양성 선언의 상징 이미지  
(출처 : 유네스코 위원회 홈페이지)

문화다양성은 인류학적 성과 즉, 모든 개인과 집단의 문화는 상대적이라는 문화상대주의에 입각한 개념입니다. 개인 혹은 집단이 개인의 삶과 특정한 역사 속에서 체득한 문화는 정체성의 표현이며, 지속가능한 삶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대적 질서와 규칙을 거부하고 개개인의 삶과 가치를 발견한 결과이며, 1960-7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된 탈근대적 사회운동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발견과 성과는 기술혁신과 함께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는데, 오늘날 사회의 변화는 이러한 사유의 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몇몇 사람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1960년대 이미 유네스코에서는 문화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문화다양성과 경제적 권리에 대한 논의까지 확산하였습니다. 마침내 2002년 유네스코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는 흔히 1948년 “세계 인권선언”의 문화적 버전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권리를 선언함으로써 권력으로부터 인간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과 집단의 문화다양성을 선언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체성을 사회적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 보편가치로서의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은 2002년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이후 유네스코에 의해 권장되고 확산되는 가치입니다. 이는 각국의 상황을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류 보편의 지향입니다. 또한, 2005년 문화다양성 세계통상협약은 국제 통상협약으로서 상업적 이익에 의해 인류 보편의 가치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림> 2017년 문체부 사업으로 진행된 문화다양성 연수  
(제공 : 문화디자인자리)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처음으로 정책화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다문화사업과 맞물리면서 진행된 측면이 있지만, 기존의 다문화정책과 분리되어 2012년 새롭게 추진된 정책입니다. 그래서 불쑥 나타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글을 여기까지 읽고 있는 독자라면, 문화다양성의 관점이 그냥 트렌디한 정책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성찰을 통해 발견된 인간의 보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 굳이 선언을 하는가 하면, 각국의 문화정책과 국가 운영방향에 권고 혹은 강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야 할 문화다양성의 가치는 인간과 사회의 보편가치라는 점입니다.

## 다양성이 상실된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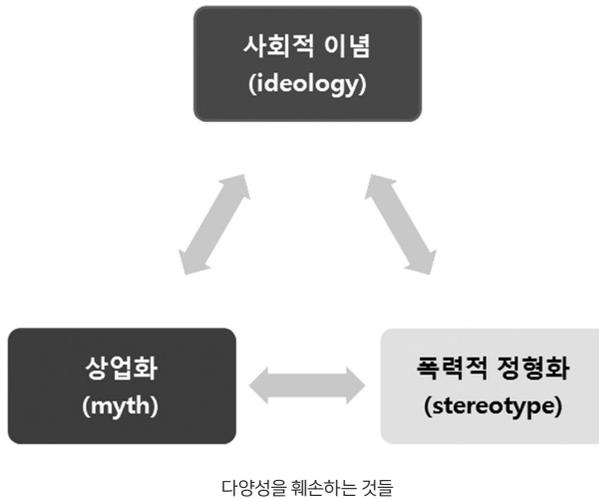
그럼에도 문화다양성은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보편가치로서의 문화다양성 감수성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문화다양성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닌듯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문화다양성의 상실은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겪은 구체적 현실이었습니다. 유럽과 같은 곳에서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지만, 아직도 지구상의 많은 나라에서는 현재 진행형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근대국가체제, 관료 시스템, 근대교육제도 등을 통해 국가적 틀을 만드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조 문화 다양성: 인류의 공동 유산

문화는 시공간에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집단과 사회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구현한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중에서)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기존과 다른 강력한 권력을 구축할 때, 가치와 질서를 통합하는 이념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념이 다른 이념을 압도하거나, 다른 이념을 제거하는 유일한 이념으로 작동하게 되면 사회적 획일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획일성이 정형화되고, 자본주의의 진전으로 상업화가 가속화될수록 다양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도 그러했지만, 우리나라도 그러한 획일적 이념 속에 다양성은 불필요하거나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물론, 부탄과 같은 나라는 그러한 근대 자체를 마치 건너뛸 것 같은 접근을 하지만,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겪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그 다양함으로 인해 나라마다의 문화다양성의 내용과 깊이, 정도가 다릅니다. 우리사회에서 제기되는 문화다양성의 과제를 이러한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 문화적 맥락과 문화다양성

유럽사회는 300년 동안 근대화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다양성이 상실된 경험이 일어난 것도 아니며, 다양성이 증대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조금씩 변화한 것이며, 그러한 변화는 역사적 설명을 통해 이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조금 다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획일화되는 시대를 겪었고, 다시 다양성이 증대되는 사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많이 읽히는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통해 그러한 모습을 추적해 보면 한층 확실합니다.

김지영은 1982년생으로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김지영은 여성에게 억압적인 사회 현실에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것에 항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에게는 보다 평등하고 다양한 사회가 펼쳐져야 하다는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김지영의 엄마 오희숙 여사는 이제 초로의 여성으로 우리의 현대사를 고스란히 겪은 여성입니다. 어릴 적 근대화바람을 타고 공장에 나와 돈을 벌어 남자 형제들을 가르쳤고, 잘난 남자 형제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사는 중산층 여성입니다. 오희숙 여사는 혼자 야학으로 고등학교를 마쳤으며 공무원 남편을 만나 시모를 봉양하고 살았고, 딸 둘에 겨우 아들 하나를 낳아 면피(?)를 한 사람입니다. 오여사는 전업주부였지만, 가게를 위해 화장품 방판, 야쿠르트 배달을 하는 다른 아줌마들처럼 가내 부업, 야매 미용실로 아이들 학비를 번 이름 없는 가게 부양자입니다. 그리고 두 딸과 손주들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 자신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삶의 다양성이 열리는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소설에서는 여전히 여성에게 닫혀있는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만, 필자는 오희숙 여사가 겪은 삶의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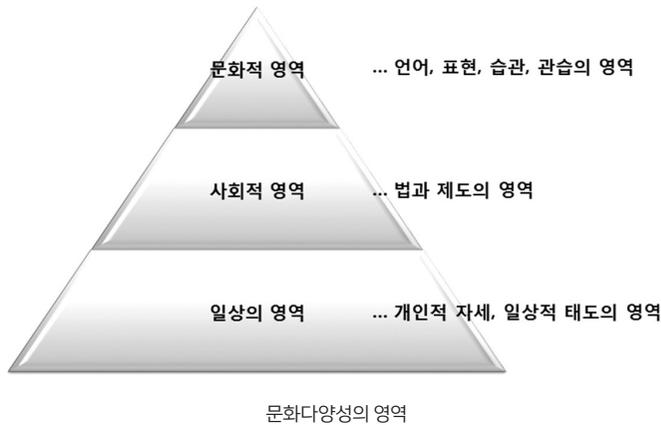
우리사회는 1960-70년대 이후 하나의 가치로 획일화되었고, 1990-2000년을 경과하면서 다시 새로운 가치로 해체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나 그러한 삶을 산 사람들의 자녀와 손주로 구성되어 어떠한 형태이건 획일적 가치와 삶에 대한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다양한 삶의 가치나 개성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문화다양성은 “표현의 다양성”으로부터 “삶의 다양성”으로

세대를 나누어서 사회적 변화를 흡수한 유럽 사회와 달리 우리 사회는 개인의 삶에 대한 오해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말이 쉬워서 오해이지, 사실 삶에 가해진 사회적 폭력에 대한 규명과 화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유럽과 다른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담론의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82년생 김지영』의 표지



문화다양성은 일상의 영역과 사회적 영역 그리고 문화적 영역에서 다양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영역에서의 변화 없이 사회적, 문화적 변화는 다시 개인과 관계의 굴절을 낳게 됩니다. 따라서 문화다양성은 일상의 영역 즉, 주체의 삶과 생각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고 사회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삶 안에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문화다양성 선언에서는 “문화권”이라고 명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문화적 권리를 가지며 이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인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문화다양성은 개인의 문화권에 기초해야 하며, 이렇게 될 때 표현과 삶의 다양성이 확장될 것입니다.

제5조 문화 다양성을 위한 환경으로써의 문화권  
문화권은 인권을 구성하는 데 뺄 수 없으며, 보편적이고 개인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요소이다.  
(유네스코문화다양성선언 중에서)

## 표현되는 삶, 삶의 다양성으로

우리 사회는 촛불시민에 의해 새로운 사회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대한 정치적 변화인 듯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염원과 관계가 변화한 것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이미 자신의 문화적 권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주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블랙리스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정권의 코드에 맞지 않는 예술인을 배제하는 리스트를 가지고 관리했다는 이 사건은 단지 예술인 탄압 혹은 빼돌어진 문화예술정책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은 이 사회의 표현 영역의 가장 앞에 선 영역입니다. 흔히 우리는 TV나 영화 혹은 광고, 음악 등을 통해 새로운 시선과 방식을 수용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영역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는 삶의 다양성을 훼손한 일대 사건입니다.

문화다양성은 단지 표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표현 속에 있는 삶의 가치, 일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스스로 그러한 삶의 주체로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문화다양성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재구성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이웃을 발견하는 가치입니다.